

차천로의 시창작의 개성적특징

김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형상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 식의 투를 가지게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2~303페이지)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에는 남다른 개성을 지니고 시창작을 벌린 시인들이 적지 않다.

16세기 후반기~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차천로(1556-1615, 자:복원, 호:오산)도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시창작적개성을 가진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차천로는 임진조국전쟁과 전쟁이후 심각한 사회적변동이 일어나던 17세기 전반기에 당대 사회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시창작활동을 벌린 문인이다. 차천로는 일찌기 19살에 알성시(임금이 문묘에 참배하고 성균관에서 보이던 립시과거시험)에 합격하였고 1577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봉상시 첨정벼슬을 하였다. 시와 문장에 능했던 차천로는 선조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문학적재능이 뛰어났으므로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제술관으로서 수많은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차천로의 한자시작품들은 시적묘사와 양상, 시형식탐구에서 특징적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차천로의 시창작의 개성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시적묘사가 생동하고 회화적인것이다.

차천로의 시작품들에서는 매우 섬세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어로 여러가지 대상, 현상들을 생동하면서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차천로의 생동하고 회화적인 시적묘사는 주로 자연풍치를 노래한 시작품들에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은 구체적이며 생동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정서를 진실하게 그려낼것을 요구한다.

차천로의 자연풍치를 노래한 시작품들은 어느것이나 실지 눈으로 직접 보고 감상하는듯 한 감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차천로는 한편의 시를 지어도 섬세한 필치로 인간의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직관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짓군 하였다.

대표적으로 시 《화판에 쓰노라》를 들수 있다.

흰눈은 층층이 봉우리에 쌓여 경치를 돋궈주고
찬구름은 일만초목에 그늘을 덮어주누나
석양이 비껴오는 돌다리길을 따라
하늘소 등에 실려 돌아오는 심정이어

작품은 5언절구로 된 짧은 형식의 시이다.

작품에서는 흰눈이 층층이 쌓인 산과 초목에 그늘을 지어주는 찬 구름에 대한 생동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한겨울 저녁의 산촌전경을 섬세하면서도 생동하게 그려보여주면서 하

늘소의 등에 앉아 돌다리길을 따라 돌아오는 나그네의 마음을 자연풍경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동호정사십영》과 《송도십이경》도 생동하고 회화적인 시적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송도십이경》에는 《자하동에 노을이 걷히다》, 《푸른 교외에 지는 해》, 《밤에 서강에서 물고기 낚으며》, 《남루의 저녁등불》, 《거치른 만월대》, 《송악의 바다구름》, 《천수대에서 나그네를 보내며》, 《만족하여 스님을 찾노라》, 《화원에서 꽃을 감상하며》, 《가을철 룡산을 부감하다》, 《화담송월》 등의 제목으로 된 12수의 시작품들이 있는데 매 작품들은 능란한 시어활용과 함께 자연경치, 사물현상 하나도 분석적으로, 세부적으로 대한 차천로의 탐구심을 엿보게 하고있다.

십리평지 거칠어도 끝없이 청청하고
서쪽으로 지는 해 동쪽성에 반쪽이 걸렸구나
외로운 연기 떨어지는 물 가을빛은 사라지고
저물녘 아지랑이 산에 걸려 아물해라
구름은 걷히여 까마귀잔등 뒤채이며 번뜩이고
하늘은 텅비여 새들은 밝은 곳 찾아 날아간다
목동은 소와 양을 따라 내려오네
달풀언덕 소나무문 그림으로도 못그리리
(시 《푸른 교외에 지는 해》)

시는 해가 지는 저물녘의 산촌의 구체적인 정경을 눈에 보는듯이, 귀로 듣는듯이 방불하게 그려내고있다. 많은 시적대상들을 짧은 시형식속에 재치있게 련결시켜 하나의 완결된 시적화폭을 펼쳐놓은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지는 해, 동쪽성, 외로운 연기, 떨어지는 물, 산에 걸려 피어나는 아지랑이, 까마귀잔등, 목동이 끄는 소와 양, 달풀언덕, 소나무로 된 문 등의 사물현상들을 하나의 목가적인 정서로 조화시켜낸것은 그의 화가적안목과 함께 시적묘사의 섬세성과 구체성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차천로의 시가 생동하면서도 여운이 깊은것은 시적사색이 깊고 정서적흐름의 폭이 넓기때문이다. 어느 한 대상을 노래할 때도 전혀 인연이 없어보이는듯 한 다른 대상까지 함께 묘사하여 하나의 정서적흐름을 이루게 하는것이 그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차천로의 시창작의 개성적특징은 다음으로 시의 양상이 안온하면서도 사색적인것이다.

차천로의 시는 깊은 서정으로 하여 안온하면서도 사색적인 양상이 짙다.

대표적으로 시 《가을생각》을 들수 있다.

변방 찬서리속으로 기러긴 멀리 날아가고
푸른 구름 흘러흘러 수평선 아득해라
시름겨운 나그네 그리운 님만 생각하니
고요한 밤 빈 창문에 달빛이 스며드네

작품은 변방에 대한 걱정으로 일관된 시이다. 시인은 변방의 엄혹한 형편을 제시하고 첫구에서 강렬하고 직접적인 토로가 아니라 고요한 밤 창문에 스며드는 달빛과 같이 변방에 대한 걱정과 님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노래하고있다. 즉 변방에 대한 걱정을 님에 대한 그리움과 밀착시켜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안온하고 사색적인 양상속에 시적정서의 진실성과 소박함을 보장하고 감화력을 높이고있다.

시 《김수재에게》 제2수에서도 시인은 김수재(김시국)와 리별하는 슬픈 정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리별할 생각에 쌓이는 슬픔 금할수 없구나
 슬픔에 긴 탄식 어찌할수 없구나
 백발된 몸 석잔 술에 슬프게 리별하건만
 맑은 눈으로 서로 보았노라 사나이 그 마음을
 저문 하늘에 맞붙은 들 바다기운 혼미하고
 먼 나무에 걸린 구름 봄그늘 지어주네
 시를 짓는다 하여 아무거나 택하지 말게
 조물주 시기하여 조용히 충고하리

작품에서 시인은 벗과 리별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서글픈 마음을 저멀리 지평선, 바다기운도 싸늘하고 먼 나무에 걸린 구름도 조용히 봄그늘 지어주는 쓸쓸한 자연환경에 비유하면서 담담하면서도 사색적인 정서로 노래하였다.

차천로의 시작품들은 비록 사회현실의 불합리를 비판한 작품이라고 하여도 형상적의도를 시형상속에 깊이 묻어둠으로써 비판적지향을 직접 로출시키지 않는 창작수법을 리용하고있다.

실례로 과거의 력사적사건과 사실을 가지고 시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을 들수 있다.

왕씨의 웅건한 수도 500년
 풍운도 옛 산천을 변하게는 못하누나
 첨성대는 기울어져 파룻파룻 이끼 끼고
 만월대도 황량하여 넉출이 감겼어라
 기러기처럼 나라는 갔어도 성곽은 남아있고
 새와 같은 인생에도 이름은 남아있네
 천잔 술을 아프게 마시누나
 흥망과 더불어 겹도 조용히 소리내네
 (시 《만월대에서 여러 공들에게》)

작품의 기본정서는 고려의 500년사에 대한 회억의 감정이지만 여기에는 당시의 위정자들의 그릇된 정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사를 잘하지 않고 나라를 망국의 위기에 빠뜨리는 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다.

그의 시에 리용된 시어속에 《靜(고요할 정)》자가 많은것도 안온하면서도 사색적인 양

상의 시를 즐겨 썼던 차천로의 창작적개성과 관련된다고 본다.

차천로의 시창작의 개성적특징은 다음으로 룰시형식을 많이 활용한것이다.

차천로는 다른 시인들에 비하여 룰시형식의 작품을 특별히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시세계를 대표할수 있는 작품들도 거의나 룰시작품들이다.

《오산집》에 실려있는 차천로의 시작품유산은 모두 507수인데 그가운데서 5언룰시는 52수, 7언룰시는 390수이다. 즉 전체 시유산의 거의 85%가 룰시작품이며 특히 7언룰시는 7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차천로는 룰시로 된 시초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룰시작품에는 한 제목아래 두수이상, 지어는 10여수이상 되는 시초형식의 작품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의 룰시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동호정사십영》(10수), 《송도십이경》(12수), 《김수재에게》(3수), 《담양으로 부임하는 리자민을 보내며》(9수), 《령남의 좌막으로 부임되어가는 조씨와 배씨에게》(6수), 《리제독을 보내며》(100수), 《서울로 올라가는 리수광에게》(13수)를 비롯한 작품들은 하나의 제목, 하나의 주제밑에 대상을 여러가지로 설정하여 시적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매 작품들이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내용이 련관되어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룰시는 절구보다 길지만 작시규범이 매우 까다롭다. 압운과 평측을 맞추고 대구를 맞추는것은 매우 어려운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감정정서를 풍부하게 반영하는데서도 일정하게 지장을 받는 형태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차천로는 현실에서 환기되는 풍부하면서도 폭넓은 감정정서를 여러 수의 룰시에 나누어 표현하였다고 보아진다.

한자시에서 절구시형식을 리용한 시초는 찾아볼수 있지만 룰시로 된 시초는 그리 흔치 않다. 많은 수의 룰시로 시초형식을 묶어낸것은 한자시형식리용에서 나타나는 차천로의 개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차천로는 자기의 고유한 창작적개성을 가지고 시창작활동을 벌린 시인이였다.

우리는 력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과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켜 유구한 우리 민족문학사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